



10월 27일 열린 다민족기도대회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타민족들이 손을 들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허리케인 샌디 구호 활동 확대

월드비전 발빠른 대처

시속 8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샌디(Sandy)의 피해 상황이 속속 보고됨에 따라 세계적인 기독교 비영리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이 피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월드비전은 뉴욕, 워싱턴 DC, 웨스트 버지니아 등 세 곳에 피해 조사반을 파견했으며 추가 구호 활동 직원들을 비상 대기 시켜 놓고 피해 규모에 따라 구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식량, 담요, 개인 위생용품 등의 구호 키트를 실은 트럭들이 달라스 인근에 있는 월드비전 재난 구호 본부로부터 출발해 이번 주 내로 동부 연안의 주요 피해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밖에 DC와 달라스 재난 구호 본부에 추가 구호품을 비축해 놓고 구호 활동 확대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 있는 월드비전 국내자연재난구호팀장인 필리스 프리먼 씨는 "강 수위가 높아지고 교량이 폐쇄됨에 따라, 월드비전 직원들이 비교적 안전한 맨하탄 지역으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모든 전기 용품의 전원 플러그를 뽑고 구호품들을 높은 지역으로 옮겨 놓았지만, 강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긴급 구호팀의 구호품 배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지난 해, 미국 내에서 일어난 6개의 주요 자연 재난 사태에서 총 4만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던 월드비전은 올해, 허리케인 아이작, 오클라호마 주 산불, 텍사스 토네이도 사태 등에서도 구호 활동을 펼쳤다.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손실을 일으켰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당시, 월드비전은 82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31만 명에게 분배한 바 있다.

한편, 허리케인 샌디의 구호 활동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GIVEUSA' 문자를 777444로 보내어 10달러씩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한국어 안내 전화 1-866-육이오-1950에 직접 연락해 참여할 수도 있다.

조요한 기자

남가주 한인들 기도 합성 미국을 뒤흔들다

한인교회의 뜨거운 기도 영성이 27일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에서 열린 다민족기도대회에서 다시 한번 불타 올랐다. 한인들에게 특별히 배정된 기도시간은 약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체 기도회 총 8시간 중 2시간이 한인들에게 할애됐으며 시간대로 보면 기도회의 끝난 타임은 한인교회가 맡은 셈이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등 인종을 초월한 기도자들이 한인 기도시간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시간이 시작되자 뜨거운 통성 기도가 터져 나오며 타민족들까지 통성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인들은 비록 이민자이지만 미국 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미국과

캘리포니아를 위해 기도했다. 또 최근 한인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도 기도의 입술을 모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가주 지역의 주요한 교계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한인교회 연합의 의미도 컸다. 남가주 교협, OC교협을 비롯해 지역 교협이 모두 참여했고 미주성시화운동

부도 참여했다.

타민종과 함께 한 집회인만큼 KCCC와 JAMA의 참여도 뜨거운 한인교회 차세대 사역에도 좋은 연합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젊은 2세들이 행사의 진행과 안내를 도와 더욱 부드럽게 모든 행사가 진행됐다. >3면에 관련기사
 토마스 맹 기자

기윤실 사회봉사상 수여 방주교회, 국제결혼선교회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마련한 제1회 사회봉사상에 방주교회(김영규 목사)와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회장 이정희)가 각각 선정됐다. 이 상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린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불이 수여된다.

웨스트LA에 있는 방주교회는 평소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에 앞장서 교계에 모범을 보여 왔다. 교인수 70여명의 이 교회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2년째 한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펼치고 있다. 미주리 로버츠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선교 전국연합회는 상채받은 국제결혼 여성을 위해 평화의 집을 운영 중이다.

정하나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11월 4일 성가대합창제 개최



(왼쪽부터) 임인용 부회장, 김미선 회장, 서병호 합창분과위원장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이하 교회음악협회, 김미선 회장)가 11월 4일 주일 오후 6

시 30분에 중현선교교회에서 남가주 성가대합창제를 개최한다.

초교파적으로 열리는 합창제에는 랜디감밴드, 포에미합창단, 남가주 사랑의교회, 늘푸른교회, 원서연합감리교회, 주님세운교회, 중현선교교회, 이화양상블, 색스폰밴드 등이 출연한다.

교회음악협회 임원진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미선 회장은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개최하는 잔치로 준비했다. 사실 오랫동안 음악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이 빠지기 쉬운데 합창제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발표하는 것에 은혜를 받고 음악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찬양제의 의미는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께 순수하게 올리는

찬양의 장으로, 매우 기대된다"고 했다.

서병호 합창분과위원장은 "교회에서 합창을 통해 찬양하는 것이 교회 음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라며 "교회음악으로서의 합창제가 귀중한 기회이자 경험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음악협회는 음악을 통한 교회 연합을 도모하며 매년 한차례 이 행사를 개최해, 올해로 벌써 31회째를 맞이했다.

교회음악협회 김미선 회장은 총신대 출신으로, 교회에서 다년간 뮤직 디렉터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미주 총신대 교회음악과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문의: 김미선 회장(213-820-3873 / genesismusic2000@yahoo.com)

토마스 맹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INSURANCE & RENT CAR

TAX 문제 전문
 자산통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CC Choi, E.A.

HANA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AEP [Annual Election Period] 기간에 점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건강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평생을 이용하여야 되는 매우 중요한 건강 보험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건강 보험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이 메디케어 신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메디케어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메디칼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처방약의 지불금액을 메디칼 수혜자처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플랜에 자격이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메디케어에 신청 하여 드립니다. 또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도 메디케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유료/ 무료 보험을 통하여 한인 어르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정 하여 드리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한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보험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메디케어 / 메디칼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헬스의 세미나는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11월 3일 토요일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세미나입니다. LA office 10:00 ~ 12:00
Rowland Heights office 2:00 ~ 4:00

- 하나 보험은 자동차 보험도, 건물 보험도, 사업체 보험도 생명보험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 11월 10일 토요일
- 하나보험은 오직 메디케어 건강 보험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LA office 10:00 ~ 12:00
- 하나보험은 1년 365일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의 고객 만족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uena Park office 2:00 ~ 4:00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하나헬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AEP(Annual Election Period) 기간에는 토요일에도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ANGE COUNTY	ROWLAND HEIGHT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Cell 714-614-0903	6011 Orangethe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Allen Min LIC# 0D19973 Cell 213-272-2412	1722 Desire Ave. Suite.106 Rowland Heights, CA 91748 Mi Young Hong LIC# 0672051 Cell 714-715-6345

***하나헬스와 함께하실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Medicare Part 'C' Plan 전문 회사인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에서의 소수의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으신 보험 Agent를 LA 와 OC 에서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현재 보험 License가 있으신 분이됩니다. 모든 Training과 Certification 교육을 도와 드리며, 높은 수입을 약속합니다.

건강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광고용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는 사회 서비스 기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주무관청(CMS) 혹은 사회보장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혜택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1-855-386-3088

남가주교회협 주최 윤호균 목사 초청 집회

“주님과 성전 중심의 삶” 영적 대각성 집회 성황리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 주최로 영적 대각성 집회가 24일부터 28일까지 남가주 일대 교회들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감사로 윤호균 목사(한국 화광교회, 성산수양관 원장, 한기총 부흥협의회 회장·영적각성위원장 역임)가 선 가운데, 집회 기간 동안 남가주 지역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

집회는 24일 저녁에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25일부터 27일 새벽에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26일 저녁에 은혜한인교회(한기총 목사), 27일 저녁에 엘바인침례교회(한중수 목사), 28일 오전에 벨열장로교회(변영익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6일 오전 5시 30분 윤호균 목사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민수가 1장 5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성막은 현대엔 교회를 지칭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성막을 책임지게 하시고 축복을 부여 주셨다”며 “이런 영적 사건은 시간 제한이 없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다. 즉,



윤호균 목사가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를 책임지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

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중심이다. 교회는 담임목사와 하나되어 나아가면 크게 부흥한다.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에 한 발자국씩 발을 걸쳐 두지 말고 성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절대 팔자 타령을 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돈과 지식이 없어도 쓰실 사람은 쓰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부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 가족을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정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지금 한국 청년은 미전도종족 될 지경

임현수 목사 “선교하고 전도해야 산다”



임현수 목사가 복음전파에 관한 열정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가 제 9차 영적쇄신집회를 ‘열방이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하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강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초청돼,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그는 한국대학생선교회 간사출신으로 현재 큰빛교회 담임, GAP(세계협력선교회) 이사장으로 있다.

26일 임현수 목사는 ‘교회 존재의 목적’(마태복음 28:1-1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토론토에서 주 1회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지만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며 “전도가 안되는 이유는 전도를 안하기 때문이다. 단지 실천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하늘의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 요즘 한국 대학생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2.5%밖에 안된다고 한다. 선교계에서 복음화 비율이 3% 밑으로 내려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하루에 한국 젊은이들 42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누군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더라면 그들이 죽었을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의 말세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때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마치 약세서 리갈이 여기는 모습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교회만 왔다갔다 하면

서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임 목사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는 전적 부패를 의미한다. 한국에는 죄의 더러운 전염병이 가득 넘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해서는 안되는 게 있다”며 “WCC를 보면,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기독교 교리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빼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난센스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순 없다”고 단언했다. 또 “요즘 기독교는 진·선·미를 강조하는 기독교, 중성화된 모습이 있다”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목사는 “요즘 세대는 욕망의 시대이고, 강박하고 강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한다”며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보낸 만큼 성장하게 돼 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이 내 안에만 고립되면 모든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영국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이다. 모든 이민사의 중심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준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건강 지키자” 무료 건강박람회 열려

무료 건강박람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진료와 상담을 받았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와 LA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 세인트빈센트병원(원장 케이시 픽스)의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박람회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총영사관 주차장 및 민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1000여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이 실시됐으며, 혈당 검사, 갑상선, 전립선, 간, 신장 등 초음파 검사, 치과 검진, 당뇨병 검진, B형 간염 검진, 폐용량검진, HIV/성감염 질환 검진, 혈압 검진, 체지방 검진 등이 진행됐다.

또 현장 의사 상담, 안, 영양, 당뇨병, 심장병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50여명에게 유방암 예방을 위한 매모그램 촬영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사우스베일로한방병원이 침술 및 한방치료를 도왔다.

교회회장 변영익 목사는 “교회협이



건강박람회에 참여한 한 한인 여성이 무료 검진을 받고 있다.

무료 건강박람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지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아직 큰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며 “이번에 감기에방 주사가 특히 인기였다. 앞으로 박람

회를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진료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건강 박람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네 차례 실시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한방대학도 참가함에 따라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fh KAFHI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10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포럼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은 1971년 래리워드 박사에 의해 시작돼 국제선교구호기구로서, 빈곤국가에 성격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동체 개발 선교를 위해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KAFHI는 미국내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제기아대책(FH) 소속 NGO 선교기구로서 2002년에 설립되어 어린이결연, 긴급구호, NGO선교훈련, 기아봉사단 파견을 해왔습니다.

장소 등록 및 숙박, 아침기도회
Hampton Inn & Suites Phoenix Chandler-Fashion Center AZ
1231 South Spectrum Boulevard, Chandler, Arizona, 85286, USA
TEL: 1-480-917-9500

등록 11월5일(월) 오후3시-5시(Hampton Inn 로비, Chandler, AZ)
회비 200불(호텔 숙박 및 교재제공)

대상 선교사 및 선교사 지망생, KAFHI 전 현직이사, 국제본부 임원, NGO 선교 관심자, 개교회 선교담당 목사 및 선교부장

회비 1인당 150불, 당일등록 200불입니다.(숙박, 전일정 식사, 세도나 포함)
선교사님은 항공료 지원합니다.

내용 기념예배 및 선교사상식, NGO 선교도전(이원상 목사), 세계선교동향과 이슬람선교(백신종 선교사), FH본부 견학 및 VMV(Marty Martin), 빈곤아동 후원을 통한 지역선교(정승호 목사), NGO 선교보고(케냐, 캄보디아, 자메이카, 아이티), 지역교회 선교모델(주예수, 새소망, 한길, 헬로쉽), 선교간증(이중도, 백신종, 조미선, 권오준)

예배 만찬 및 포럼

템피장로교회(담임목사 윤정용)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Tel: 480)726-0191
FH 국제본부 / Food for the Hungry,
1224 E. Washington Street, Phoenix, AZ 85034-1102

초청인

- 명예이사장 : 이원상 목사, · 부이사장 : 이순근, 이종관, 노진준, 최훈석,
- 회장 : 김형균, · 사무국장 : 정승호

일정 2012년 11월5일(월) 오후5시-11월7일(수) 오후 5시

연락처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Office 847-296-4555,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703-473-4696,
shchung@fh.org **www.fh.org**

온 땅에 가득한 코리안 스타일 “주여! 주여! 주여!”



20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인종 교파 문화 초월해 미국 위해 뜨거운 기도

“주여, 주여, 주여” 곳곳에서 한국 말로 ‘주여 삼창’의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가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의 페이스 돔을 가득 채웠다.

백인, 흑인, 라티노, 동양인 할 것 없이 피부색과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모두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해냈다.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인종, 교파, 문화를 초월해 모여,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춤을 췄다. 그들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록한 기독교 국가 미국이 이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현상을 개탄하며 기도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20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선 미국 곳곳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고, 음란과 폭력의 문화가 전염병같이 번져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탄식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했다.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이까”라는 음성을 취한 것처럼, 이날 기도의 용사들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간구했다.

대회는 “A Line in the Sand-모래 위의 선”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는 영적 전쟁을 선포, 최후의 보루가 돼 신성한 가치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다.

이날 코리안 스타일의 ‘주여 삼창

기도’의 힘은 엄청났다. 비록 피부색은 다르지만 한인 목회자들이 각각의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다민족 구성원들은 합심해 합목적적인 기도의 조화를 이뤘다.

환영사를 전한 대회 미국대표 데이빗 안드라데 목사는 “지난해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던 11.11.11 로즈볼 기도회를 기억한다. 우리가 피부색과 문화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섞여있는 이곳 미국은 우리의 나라”라며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뿔히 이기신다. 모든 자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대회 한국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는 “LA에 살고 있는 다민족이 모여 비상으로 기도대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며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탈북자 복속 반대와 인권 개선을 위한 동영상이 상영되면서, 북한 땅에서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북한의 기아 해결과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시대적 요청도 이어갔다.

오후 3시 50분부터 시작된 한인 특별기도 시간에는 △LA와 미국 사회, 경제 회복 △개인 회개와 영적 각성 △사회의 변화와 거룩성 회복 △동성 결혼법 폐지 △탈북자 인권과 미

국과 한국 정치 지도자와 대선 △결혼과 가정, 낙태법 폐지 운동 △헐리우드 문화, 예술과 차세대 교육 △차세대 선교 자원화와 동력화 △중국과 미국의 중국인 교회 등의 주제를 놓고 기도했다.

또한 모든 주제의 기도를 마치고 한인 목회자들이 모두 강단에 나와, 남가주 1200여 한인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마무리 기도와 축복기도가 이어져 은혜를 더했다. 중국교회를 위해선 중국 목회자가 기도회를 이끌었다. 특별히 전주승 목사(시티하베스트)가 헌금기도를 했으며, 노형건 선교사가 이끄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메시아여성합창단이 헌금특송에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돌렸다.

이번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찬양은 박종술 목사가 인도했으며, 송정명 목사(다민족연합기도대회 대표회장),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가 대표인사 및 개회기도를 했다. 기도회는 김춘근 장로(JAMA)가 동영상으로 참여했으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김성민 목사(나성한인교회),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손병렬 목사(남가주동신교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김동환 목사(KCCC USA),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인도했다. 광고는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통역은 김모세 간사(KCCC)가 했다.

이날 2012 다민족연합기도회는 남가주의 많은 한인 이민교회와 단체들의 재정 후원으로 열렸으며, 특별히 대회를 위해 KCCC 간사와 리더들이 수고해 매끄러운 진행을 도왔다.

이번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고 주도함에 따라 앞으로 남가주에서 열리는 연합기도대회 행보와 기도 운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회 주최는 Rose Bowl Gathering이, 한인 주최는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한인 주관은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가 했다. 단체로는 각 지역교회협의회, KCCC, JAMA, KCC 등이 참여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교계의 영적 색인에 한 획을 그은 이번 연합 기도 운동에 동참했던 한인 목회자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거룩한 소통, 복음적 대화를 회복하라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갈등'과 '분쟁'이라는 명제를 놓고 해마다 열띤 토론을 펼쳐온 '열린말씀컨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려 '소통'이라는 화두를 놓고 씨름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다. 올해로 미 서부지역에서 여덟 번째를 맞는 '말씀 축제'다.

열린말씀컨퍼런스는 2002년 동부에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대학교 출신의, 개혁주의 말씀운동을 표방하는 소수의 뜻있는 목회자들에 의해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말씀사경회다. '열린말씀연대'라고도 불리우는 이 운동은 초기 구성 멤버의 대부분이 동부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탓에 지리적 여건상 서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에 따라 자연히 서부에도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 지금은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에서는 노진준 목사(LA 한길교회)를 비롯해 김한요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 박영배 목사(폴러튼 뉴라이프선교회),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가 주요 멤버다. 동부에서도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를 비롯해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와 최정권 목사(헬튼행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이들 강사진들 대부분이 1.5세 목회자로 이중언어에 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거룩한 소통: 복음적 대화를 회복하라'라는 주제 하에 주요 강사진들이 '소통'을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는 지난 4월 동부에서 열린 제10회 모임의 주제와도 동일하다.

집회 첫날 강연에선 김태권 목사와 김한요 목사가 소통의 관점에서 본 복음적 원리에 대해 소개했고, 이튿날 오전 박영배 목사가 복음적 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 날 순서에선 김태권 목사와 한성윤 목사가 각각 세상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풀어냈다. 이번 집회의 코디네이터 박성일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소통'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날 걸로 드러난 개신교의 이미지는 '뻔뻔한, 막무가내식 집단'이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무리하게 선교를 강행함으로써 인해 국가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또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배너를 들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이들로 인해 믿지 않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지금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불교 사찰에서 '땅 밟기' 해프닝을 벌여 세상의 지탄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화려하면서도 값비싼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기업을 상속하듯 교회를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세습'까지 더해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끝없이 실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방어적 자세를 갖기 보다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과의 소통에 있어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

을 통한 성육신적 접근법을 재발견하길 바란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소통 성육신의 원리가 핵심

맨 첫 강연을 맡은 최정권 목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소통과 낮아짐의 원리'(눅9:19-27)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또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최 목사는 "성경은 소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통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통이란 단순히 '통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의 방법을 택하셨다"면서 "특히 4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신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소통의 문제를 말하자면 우선 '죄'의 문제를 잘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가로 막는 건 언어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세상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함정으로 △기독교 승리주의에서 비롯된 무례한 자세를 예로 들었고 △어떻게든 소통해야 한다는 '소통 제1주의'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성경 중 소통의 관점에서 죄악의 문제를 바로 보고 소통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책이 누가복음인데, 특히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도'는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최 목사는 "교회가 자칫 세상 혹은 사람과의 소통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간과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한 '거룩한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계속하셨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통에 있어 기도를 제하거나 소통의 원리에서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소통하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참된 소통을 위해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강의는 김한요 목사가 맡았다. "변천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영원한 말씀"(행2:1-13, 36-41)이란 제하에서 김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소위 '불통'의 첫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라며 "이런 저주의 모습을 뒤집어 놓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

절 성령강림 사건인데, 여기서 소통의 중요한 한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 '방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언의 역사에 담긴 상징적 의미 즉, '복음의 평이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당시 각자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복음이 어느 한 민족이나 언어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면, 복음은 문화·인종·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계속해서 전진한다"면서 "복음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때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듯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 역시 '성육신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가 소통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인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소통을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헐어야 한다. 예수님은 철저히 거둔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와 고난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괴로움과 아픔을 한 몸으로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성육신의 원리, 즉 낮아짐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결단코 소통은 교만한 자에게 이뤄지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복음적 원리를 통해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국교회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그는 "세습이란 이름을 붙이는 데엔 나름 거기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는 이들엔 '세습'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돈이나 권력 등 세상이 추구하는 요소가 이들에게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만약 기독교(교회)에 힘과 권력, 재력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진실된 기독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고 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전파의 철학을 언급하면서 '눈높이의 원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전9:19-23)"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듯, 바울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적인 원리인가?

끝으로 그는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한 교회에서 1-2년도 아니고 십여년을 신앙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죄의 '벽(교만)' 때문"이라며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내려가자"고 권면함으로써 강연을 마무리했다.

건강한 공동체 위한 소통의 원리
복음적 대화를 회복하라

이튿날 새벽 6시, 세 번째 강의를 맡은 박영배 목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소통의 원리'(살전5:12-28)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피스메이커 사역을 15년째 이어 오고 있는 박 목사는 이날 강연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소통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복음적 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면서, '타인과 소통의 원리', '자기 자신과의 소통의 원리', '하나님과 소통의 원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구체적이고도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했다.

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는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욕구다. 타인을 무시하려는 욕망이 내 마음 깊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말을 실수로 내뱉게 되거나, 때로는 고의적으로 가시 돌린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적인 모습이 있다. 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봐야 한다. 그런데 좋은 소통의 시작은 경청에서부터 나온다"면서 올바른 복음적 대화법을 훈련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먼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 △복음적 대화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언어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살펴 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청의 원리 △교회 내 섬기는 자들을 세워주는 원리 △인내의 원리를 복음적 대화를 위한 기술적인 원리로 꼽았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도의 견인) 말씀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강연 말미에서 "얕서 언급한 복음적 대화법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아무리 잘 사용하고 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는 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 세상과 소통하려면... 복음의 핵심 붙들어야

여기까지 소통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적 원리와 이를 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복음적 대화법에 대해 조명했다. 그렇다면, '교회 혹은 기독교가 세상과의 소

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란 문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 김태권 목사는 '세상과 소통하기: 비판적 연대성의 실천'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소통의 기본 문제는 단순히 말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며,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말이 안 통해도 진정한 소통은 이뤄질 수 있다. 하나님은 소통의 문제를 말로 해결하시지 않으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시며 끝까지 낮아지신 종의 형체를 띠셨다.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몸소 죽기까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셨다"면서 소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베드로전서 3장 13-16절을 본문으로 근거로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선행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자세를 통해 세상은 복음을 향해 소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축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주(主)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붙들고 살 때 세상사람들이 거룩한 경외감을 갖고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것"이라며 "과연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도전했다.

지식 넘어 고백적 신앙으로

사흘간 이어진 이번 컨퍼런스에서 대미를 장식한 한성윤 목사. 그는 '정보적 신앙이 아닌, 고백적 신앙을 향하여'(요6:22-29)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소통'이라는 개념을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각각 대입시켜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가미해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소통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의 아름다운 소통 작업은 첫 사람 아담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눈에 보이며 느끼지는 '정보적 사실'과 그 뜻을 해석한 '진실적 고백'이 일치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사실과 진실이 갈라지면서, 사실상 인간은 진실로부터 소외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소통도 멀어지게 됐다"면서 '소통은 곧 창조요, 구원(재창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소통을 풀어내면서 "사랑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거짓된) 지식이 불과하다. 정보적 지식과 고백이 하나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사흘간의 뜨거운 담론에 이어 집회 마지막날엔 소통을 주제로 한 행사로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좌담회 순서가 마련돼 청중과 소통하는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한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한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억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독
증상별 처방/전연 한약제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출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상리하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제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예언성취와 믿음

요한복음 11:47-5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역사를 창출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 절대자의 계획에 따르는 앞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해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속한 '나라'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한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역사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기대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사하시는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역사 속에 태어나서 살아온 오늘의 내가 앞으로 겪게 되는 것들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계획하시고 엮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언(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 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봐야겠고 앞으로 어떻게 주변역사가 엮여져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훗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과정에서 영생복락이라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벧전3:16)”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역사, 우리 나라와 우리들의 형편을 어떻게 엮어 가실지에 대해 살피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가 하여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서 있었던 기적을 두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나누는 말들입니다.

본문 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고 기별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후 유대로 다시 가지 하시니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라고 불만스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으면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나사로가 죽었느냐”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심성이 약해서 만일 베다니에 계시고 나사로가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고쳐 살리실 마음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죽음으로 부활이 어떻게 실현되는

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8-9에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알듯 하면서도 여전히 분명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베다니로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길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하는 말투였습니다.

예수님이 며칠이 걸려 베다니로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가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말은 진작에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텐데 왜 이제사 오셨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마르다가 바로 알고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구원 얻은 영혼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할 줄 믿는다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훗날로 포인트를 맞추고 현실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마르다가 안타까워 요한복음 11:25-26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훗날로 맞추었던 신앙이 바로 현실의 가능성 있는 부활믿음으로 예수님이 조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는 믿음으로 부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활생기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심령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기를 힘입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산등성이 집으로 올라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식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 자매의 신앙의 한계는 죽기 전에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죽은 후에는 예수님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우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죽음 자체가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라 울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하고 또 한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금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그토록 싫어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죽을 일만 재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서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들이 되었으며 벌써 낫새가 나나이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라 함이니이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나오니라”고 말씀하시니 삼베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니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그 집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친구들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일로 인해 분개하며 이를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칭 그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권이 실추되면 육신의 생계가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마태복음 11:21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 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아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지도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려는 자들을 막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 확장의 역사를 시기 질투하여 훼방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는데 핑계거리로 내세운 주장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갑자기 하는 말이 자신은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듯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하면서 책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가야바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섬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입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야바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무리가 늘어나서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게 되면 로마가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도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엄청난 백성의 희생을 요구할 것을 우려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만 잡아 죽이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흩어질 것이고,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었는데, 반대로 성령이 시켜서 한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의 영적 입장에서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말은 가야바가 한 것이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리로 선언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숫자가 줄어들지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진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될 희생의 속죄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성령의 하신 말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 살지 못했듯 우리가 말씀은 전하기 쉬워도 전하는 말처럼 믿어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교인입니다. 그러나 늘 교인인 채로 살아가면 안 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성도(그리스도인=예수님의 사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 반 / 동부 오후 6시 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11시 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정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 I-20 발행/ 신교시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의 비전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남 가 주

성 가 대 합 창 제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교사)

· 일시: 11월 4일(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 출연팀: 랜디김밴드, 포이에마합창단, 남가주사랑의교회, 늘푸른교회, 일서연합감리교회, 주님세운교회, 충현선교교회, 이화양상블, 섹스폰밴드

· 문의: 김미선 회장 213-820-3873
genesismusic2000@yahoo.com

〈새벽강단〉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중의 지혜



남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남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새벽을 깨운다. 김광삼 목사는 최근 새벽예배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 중의 지혜로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문: 잠언 8장 1~11절
일시: 2012년 10월 23일

행사 소식 및 단신

한선희 목사
애틀랜타에서 이단 대책 집회



한선희 목사

대애틀랜타지역한인교회협의회와 애틀랜타목사회가 가을특별성회로 '이단을 바로 알자' 세미나를 11월 2일과 3일 일로

암한인교회(1870 Willow Trail Pkwy. Norcross, GA30093)에서 연다.

강사는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이자 예상 미주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장 한선희 목사다. 2일과 3일 오후 8시에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일반 집회가 열리고 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집회가 열린다. 한 목사는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선교 포럼을 연다.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은 1971년 래리 위드 박사에 의해 시작된 국제선교구호기구로서, 빈곤국가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동체 개발 선교를 위해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다. 한인본부는 국제기아대책 소속 NGO 선교기구로서 2002년에 설립되어 어린이 결연, 긴급구호, NGO 선교훈련, 기아봉사단 파견을 해 왔다.

이원상 목사의 NGO 선교도전, 백신종 선교사의 세계선교동향과 이슬람선교 등 주제 강연이 있으며 국제기아대책 본부 견학 시간이 있다. 정승호 목사가 빈곤아동후원을 통한 지역선교보고를 한 후, 지역교회 선교 모델을 소개하고 각종 선교보고와 간증 시간도 있다.

이 행사는 아리조나의 Hampton Inn & Suites Phoenix Chandler-Fashion Center(1231 South Spectrum Boulevard, Chandler, Arizona, 85286)에서 11월 5일 오후 3시부터 열리며 행사 당일 1인당 등록비는 200불이다. 사전에 등록할시 150불로 할인된다. 이 등록비에는 세도나 관광 일정이 포함돼 있으며 선교사들에게는 항공료가 지원된다.

잠언서 7장은 '숨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8장은 '큰 거리에서 드러내 외치는 것'이다. 7장은 죄에 대한 경고이지만 8장은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한다. 7장은 그 길이 사망의 길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8장 35절에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고 했다.

8장 21절에 보면 재물을 얻는다. 하나님 지혜 아래 생명과 은총, 영생과 재물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는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것이라고 했다. 지혜를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꽃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릴 것이라고 했다.

또 크게 외치고 나팔같이 외치라고 했다. 이것은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네거리에서 외치라는 것은 나그네가 길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5절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고 말한다. 6-8절까지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아는 것이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말한다. 정직을 말한다.

7절은 진리를 말하고 그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했다. 8절은 의롭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자는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과 은총과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말씀에 있다. 이 말씀에 무장될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다. 99절에는 스승보다, 100절에는 노인보다도 승하다고 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마귀사탄보다 지혜롭다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외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업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혜의 첫째는 여호와를 두려워 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길 바란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환 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배부, 벨앨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일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체펠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기주향해도모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213-705-0404 / Fax: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주최측은 선교사 및 선교사 지망생, KAFHI 전 현직이사, NGO 선교관심자, 개교회 선교담당 목사 및 선교부장의 참여를 적극 권하고 있다.

일정: 2012년 11월 5일(월) 오후 5시-11월 7일(수) 오후 5시
전화: 847-296-4555, shchung@fh.org

미주갈멜산기도성회
"근심을 제거하고 말씀을 듣자"



조성근 담임목사

미주갈멜산기도원(원장 임예재 목사, 담임 조성근 목사)이 정기기도성회를 24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했다.

이 기도원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목요일 저녁까지 기도성회를 열고 있다. 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LA를 방문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조성근 담임목사가 됐다. 조 목사는 이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역설했다.

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며 "하나님 말씀을 들 때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소하고 익숙치 않더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SEED선교회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 학교

SEED선교회가 1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 학교'를 바이올라대학 근교에 위치한

SEED 미국본부에서 연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강의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주일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다인족 이웃리치 훈련이 진행된다.

강의에는 크리스 해리슨·조페란테·박광자 선교사 등 10여명의 선교훈련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선교와 영성을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등록비는 개인 600달러, 부부 1000달러이며, 선교회 측은 "필드에 나가기 전에 선교사 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문의: 562-926-4700
seedwo@gmail.com

남성소망교회에서 새생명감사축제

남성소망교회(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90005, Wilshire Park 초등학교 강당)가 11월 18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새생명감사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예배와 웃음치료강의(손상안 웃음치료전문가), 만찬 등으로 진행된다.

교회 측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라고 전했다. 교회는 참석자들에게 겨우살이차 1박스와 김재욱 담임목사의 저서를 선별할 예정이다. 문의: 213-550-7377

사랑의띠선교회 특별 집회

지난 10월 25일 한국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의 LA선교회회가 사랑의띠선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 선교회는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하와이 갈보리교회 원로목사이며 엘림장애인선교회 주강사 목사인 김성희 목사를 초청해 인도선교 감사예배를 드린다.

주소: 1300 W. Olympic Bl. #200 LA, CA90015, 전화: 213-736-6625 김천환 선교목사



최근 사랑의띠선교회에서 열린 엘림선교회 선교의 밤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 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 입니다.

[입학원서 마감일]

- ▶ 2013년 1월 입학: 2012년 11월 10일 경
- ▶ 2013년 6월 입학: 2013년 3월 10일 경

참고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강날짜에 대한 최종결정은 각각 2012년 11월말과 2013년 3월말에 내려집니다.

[입학요건]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 3.25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사역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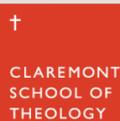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80불(3년 동안 총 32학점 수강)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 최고 지도자 과정" 수료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 1-973-713-3009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63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RCA의 새로운 10년 부흥운동 - 다민족 공동체의 꿈

정체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가 미국개혁장로교(RCA) 내에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도는 단순한 일회성 부흥운동이 아닌, 교회를 새롭게 하고 1세대에서 정체된 교회를 새로운 세대와 다민족 공동체의 유입으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향후 10년간 RCA가 꾀대를 삼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부흥운동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최근 RCA에 새롭게 부임한 톰 드브리즈(Tom Devries) 사무총장이 있고 그는 이 부흥운동의 영감을 한인교회에서 얻고자 한다.

드브리즈 사무총장이 말하는 RCA의 향후 10년 목표는 300여 교회를 북미주 각 지역에 새롭게 개척하는 것으로, 1세대와 2세대가 어우러지는 균형잡힌 교회, 또 다양한 민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다민족 공동체의 구상이다. 또 한국교회의 뜨거운 영성과 신앙심을 부흥운동을 지속할 소프트웨어로 삼고, 이 RCA의 부흥운동의 내실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뉴욕 한인동산장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RCA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뉴욕지역의 RCA 한인 목회자들 대부분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RCA에 톰 드브리즈 사무총장이 새롭게 부임한 후, 10년간의 RCA의 교단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북미주 전체 22개 지역을 돌며 진행하는 비전 컨퍼런스의 첫 모임이

었다. 이 자리는 뉴욕 산하의 각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였다.

수백 년 전 뉴욕에 온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암스테르담에서 이민교회를 세운 것이 RCA 교단 역사의 시작이다. 이에 첫 미래 비전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출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며, 특히 RCA 내 한인교회 구성이 어려워진 현재 한인교회에서 이같은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교단 내에서 한인교회와 한인목회자들에 대한 필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드브리즈 사무총장은 어떻게 교단 산하의 각 지역교회들이 복음전파와 교회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 RCA의 향후 10년간의 목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한인 목회자는 “과거에는 많은 대중이 소수의 인도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구상해야 할 때”라며 “이번 회의는 교단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같은 목적, 같은 사랑,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다민족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드브리즈 사무총장은 RCA의 향후 10년간의 목표인 교회 개척과 부흥,

톰 드브리즈 사무총장

“교단 영적 성장 위해 한국교회 배우고 싶다”

다민족교회 세우기, 구세대-신세대 통합의 비전을 지난 목회활동 가운데서 이미 체험한 인물이다. 그는 네덜란드 이민자 2세로 아버지가 목회자였다. 서부에서 태어나 자라며 이민자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한 1세대와 2세대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미주 내 2개 지역에서 맨몸으로 교회를 개척해 모두 1000여명의 회중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특히 이 회중에는 미국인 뿐만 아니라 다민족 회중도 포함돼 있다.

드브리즈 사무총장은 풀러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밟으며 많은 한인 목회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한국교회의 뜨거운 영성과 신앙심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드브리즈 사무총장은 RCA가 정하고 있는 10년 목표에 한국교회의 열정과 신앙심을 접목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를 돕고 또 미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도와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완수해 가자는 것이었다. 다음은 드브리즈 사무총장과 의 인터뷰.

-구상하고 있는 RCA 교단의 향후 10년 계획이란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9년 6개월의 기간 내의 계획이고, 이 기간 안에 287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미국과 캐나다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텐데 교회 세우는 데 12일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9년 6개월이면 287개의 교회가 된다. 약 35%는 미국이 아닌 다민족교회로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떤 교회를 원하고 있는가.

이 프로젝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큰 운동이다. 기성세대로 굳어진 교회가 아닌, 다음 세대인 1.5세 2세가 타겟이 돼서 역동성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이 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

-교단의 10년 목표가 모호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느낌이다. 또 일반적으로 작고 작은 것부터 구성원들이 세밀하게 논의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RCA의 우산 속에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닥불을 피우는데 조그만 모닥불은 혼자 있으면 금방 꺼지고 만다. 그러나 이 모닥불이 모여면 큰 불이 되어 더욱 뜨겁고 오래 탈 수 있다.

-새롭게 RCA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는데 자신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서부에서 태어나 LA에서 자랐고 시카고 유틀대학을 거쳐 풀러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이수했다. D.Min.은 오레건 웨스턴신학교에서 리더십과 교회개혁을 주제로 마치고 왔다.

풀러에서 M. Div. 과정을 밟는 동안 학교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 Farm Canyon Reformed Church를 개척했고 12년간 800명이 모였다. 교회를 시작할 때 아내와 단 둘이 시작했는데 지교회 하나를 더 세우고, 3개의 자매 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미들 이스트 지역에서 교단을 섬기면서 교회성장 및 교회개혁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또 미시간주에 Fair Heaven Church를 개척했는데 그곳은 다민족 교회로 세웠고 5개 민족이 모였다. 5개 회중이 각자 모여 또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다민족 사역을 구상했는데 특별히 한인 목회자나 한인 회중에 거는 기대가



톰 드브리즈(Tom Devries) RCA 신입 사무총장이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부흥운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열정과 신앙심을 높이 평가했다

있는가. 풀러신학교를 다니며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옛날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제자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부흥해 왔다. 그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배우고 싶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또 어떻게 예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가를 배우고자 한다.

기도와 전도가 왕성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 특히 새벽기도는 미국교회에는 없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미국교회가 부족한데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직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종으로 진심으로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존경이 된다.

-한인교회 설립이 무산됐는데 아쉬워하는 한인 목회자들도 있다.

한국교회가 큰 힘을 갖고 있고 영적인 성장과 전도에 있어 미국교회에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 별도의 노회나 아니라 미국교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도와주고 미국교회도 한국교회를 도우며 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대원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컬러)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20년 전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지금은 어디에

한국 중앙일보에서 2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오늘'에 대해 26일 보도했다.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 휴거가 온다고 주장했던 사이비 단체다. 그날 당연히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다미선교회 전국 173교회 8천여명의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이들은 자살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했으며 가출하는 사태도 이어졌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후 이들은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낱자를 계속 수정해 가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밝혔다.

또 당시 다미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림(65)을 비롯해 '어린 선지자'로 지목된 권미나(39), 해외선교 담당 장만호(74), 분파였던 이만성(56), 다미선교회 출신으로 다베라선교회(1992년 10월 10일 휴거 주장)에서 활동한 하방익(37) 등의 근황을 추적했다. 이장림은 휴거 날짜로 지정된 1992년 10월 28일 한달 전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이장림은 1993년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답게(사람답게라는 뜻)'로 개명했고, 서울 서교동에 새하늘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그

러다 2003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접었지만, 지난해 8월 신도들 요청으로 다시 다미선교회 본부가 있던 성산동에 C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답게'는 더 이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1992년 이후 쓴 저서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 그는 현재 건강 문제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방익은 시한부 종말론을 회개한 후 총신대학원을 나오며 등 정통신학으로 건너갔고, 현재 경기도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 선지자' 권미나도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종말 신앙을 전하다, 최근 일반장로교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본부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던 장만호는 아직도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출간된 <베리집에 숨겨진 사단의 역사(크리스천리더)>가 그의 책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책의 저자는 '장 죠셉'이라 소개돼 있다. 장만호는 취재진에게 "베리집이 모든 사람들 몸에 심겨지는 2013-16년 사이 휴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대용 기자

Higher Calling 2012, 2세 중심으로 열린다



Higher Calling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알렸다.

12.26 샌디에고서, 강사에 마일스 맥피어슨 목사, 켈 햄 목사, 박형은 목사 등

미주 대학생들과 10대들의 부흥을 위한 비전 컨퍼런스가 12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샌디에고 '다운&컨트리호텔 컨벤션센터'(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에서 열린다.

GKYM과 성서화운동본부 공동 주최, KCCC(미주한국대학생선교회)와 2세 사역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Higher Calling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샌디에고 The Rock Church 마일스 맥피어슨 목사, Newsong Church의 데이브 기브스 목사, 장세기 권위자이자 변증학의 선구자인 켈 햄 목사, 동양선교회 박형은 목사,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 등이 강사로 선다.

지난 2년간 GKYM 위원회가 컨퍼런스를 준비해 온 반면에, 올해부터는 젊은 2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준비되는 것이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1세의 헌신과 도움 속에서 선교대회에 참가해 왔던 250여 교회 가운데 영어권 2세 목회자들이 선교운동과 연합운동에 대한 소중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돼, 수동적으로 참가하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올해 Higher Calling 위원회에 나선 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동양선교회 영어권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 40여개 교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영어권 2세 중심으로 준비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대회의 원래 목적인 미주 교포 청년 학생들 가운데서 선교의 자원을 발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일정은 매일 아침과 저녁 집회와, 50여 개의 선택식 특강, 전도 훈련, 순모임 등으로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며, 선택식 특강은 한국어 강의도 개설된다.

또 주최측은 "작년 선교 대회를 통해 2,600여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900명이 단기선교 참여를 결단하고 그 중 700명이 선교를 떠나는 결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컨퍼런스에서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전망했다.

25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 회장 박희민 목사는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이 컨퍼런스가 올해는 2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 목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장이 거의 없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인생과 신앙의 극적 변화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다. 약 1,300명에 달하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차세대를 위해 모두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비 등록비는 11월 11일까지 170달러, 12월 9일까지 190달러, 그 후에는 240달러이다.

문의: 213-389-5222

25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 회장 박희민 목사는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이 컨퍼런스가 올해는 2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 목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장이 거의 없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인생과 신앙의 극적 변화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다. 약 1,300명에 달하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차세대를 위해 모두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비 등록비는 11월 11일까지 170달러, 12월 9일까지 190달러, 그 후에는 240달러이다.

문의: 213-389-5222

140년 전통 명문신학교
ABSW 한인 목회자 위한
목회학 박사 과정 안내

북침례교단에 속한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가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140년 전통을 자랑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학교 연합 GTU에 속한 명문 신학교이며 ATS 멤버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학교를 졸업했으며 한인 중에는 임동선 목사가 졸업생이다.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거주자와 유학생 모두 수학할 수 있으며 편입도 가능하다. 모든 강의는 한국어와 영어, 즉 이중언어로 이뤄진다.

ABSW의 Le Ann Snow Flesher 학장(구약학 교수)은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 LA 캠퍼스(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를 방문해 행정책임자 배효식 박사와 입학책임자인 김희창 박사, 교수인 조천일 박사 등과 학교 발전에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올 1월 학기에 목회학 박사 과정에 개설되는 강의는 2013년 1월 14일-18일 '한국설교의 변화'(Changes in Korean Preaching, Dr. Sam Park)와 1월 21일-25일 '비평적 해석과 프로젝트 2'(Critical Interpretation & Project Development II, Dr. Valerie Miles-Tribble)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 유익을 주는 과목이다.

문의) 213-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순교자적 삶 살면 요단강 건널 수 있어

풍성한교회에서 장요나 베트남 선교사 간증 나뉘



장요나 선교사가 풍성한교회 주일예배에서 간증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가 28일 오전 11시에 드린 주일예배에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장요나 선교사(베트남아가페 대표)를 설교자로 초청했다.

장 선교사는 이날 '선교사적 삶의 대가'(막10장 29-30절)란 제목으로 설교간증을 했다.

장 선교사는 "28년 전, 10개월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트남, 라오스 등의 1억 6천만명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옷 네 벌과 신발만을 갖고 베트남에 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다"며 "나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2급 중증 장애자이며, 뼈에 연골이 없어 척추뼈가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베트남 감옥에 7번 다녀왔어도 끔찍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그리스도만이 가득차 있다"고 간증했다.

그는 "식물인간으로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 몸의 기능은 정상적이지만 말이 안 나오고 움직일

수 없어 죽고 싶었다. 오직 청각만 살아 있었다. 10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 영생을 얻게 됐다. 세상이 고치지 못한 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8년째 살고 있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다. 죽을 각오가 있으면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각오로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알렌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러한 자세였다.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베트남에 세운 병원이 13개이고 의사만 200명이 넘지만 현대의 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이 수도룩하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병이 낫고 있다. 신앙생활은 광야와 똑같다. 흥해만 건너 왔을 뿐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위기인 것이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도 했다.

장 선교사는 "크리스천은 확신 속에 거둔다야 하고 사명으로 거둔다야 한다. 쫓벌의 존재 목적은 타는 것이고, 소금은 없어져야 맛이 나는 것이다. 휴지는 깨끗한 것이지만 더러워지는 것이 쓰임을 받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게 착각이다.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라는 믿음이 신앙고백으로 고백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울타리선교회, 어르신 위한 간식 제공

매주 월-목 LA 노인회관에서

오는 11월 5일부터 서울국제공원 인근에 위치한 LA노인회관 1층(다울정 앞, 올림픽&놀랜드)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 제공 행사가 펼쳐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다.

이 행사는 울타리선교회(나주옥 목사)가 주최하고, 거리의교회(전예인 목사)와 아가페홈미션(이강원 목사)이 협력한다.

울타리선교회 대표 나주옥 목사는 "무묘한 일상 가운데 지친 한인 어르

신들을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잠시나마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에게는 크리스피크림 도넛과 스타벅스 빵, 파리바게뜨 빵과 함께 음료수가 제공된다.

나 목사는 "앞으로 한의사들에 의한 의료봉사를 비롯해 미용봉사 등 다양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WCI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ocrdm.org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LA 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의 빛이 세상을 밝히라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중교동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에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4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김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전길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미기총 주관 뉴욕교계 회장단 간담회

교계 이슈 관련 다양한 의견 개진돼



미기총이 뉴욕지역 교협 및 목사회 증경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미주 교계의 활성화와 위해 교계 중진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교계의 당면 문제점을 토의하고 미주 한인 교회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모임을 미주 지역을 순방하며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급강산 식당에서 뉴욕지역 교협과 목사회전, 현직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진지한 토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황의춘 목사의 사회로 이대우 목사(미동부이단대책위원장)가 이단 실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뉴욕교계 회장단들은 언론이 너무 이단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을 지양할 것과 미기총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각 교회 목사들이 이단 지식을 알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기총 총무 강승호 목사는 자녀 문제를 위해 부모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 기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했고, 증경 회장단들은 이에 가정을 위한 세미나, 큰 교회와 연대 교육, 청소년 센터를 통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특별히 일주일엔 한 번씩이라도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소통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단 퇴치에 교파를 초월할 것과 청소년 문제에 우선 합심 기도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미기총 상임회장 전영현 목사가 미기총의 연혁과 역할을 소개한 후 모임을 마무리했다.

김대원 기자

순복음복미총회 여교역자 수련회 열려

이만호 목사 설교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라'



순복음복미총회 여성 교역자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회백을 경험하고 있다.

22일 저녁 8시, 제 5회 순복음복미총회 여성분과 수련회가 스프링필드 소재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담임 이성자 목사)에서 3박 4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뉴욕 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이자 순복음복미총회 부총회장인 이만호 목사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현재 자녀인 이성은 양의 안락사 문제와 관련, 계속되는 병원의 환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을 전하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만 총회장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 이번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가면 성은이에게도 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왔다"며 여교역자들의 중보기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불 없는 화로요, 단팔 없는 전병이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겠는가"라며 "끈고한 목회 현장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목회 현장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여교역자들은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먼 지역에서도 참석했으며, 강제자 목사, 감숙자 목사, 강영희 목사, 김동현 목사, 김순연 목사, 김영미 목사, 김용자 목사, 김사라 목사, 김태라 목사, 마미화 전도사, 문정림 목사, 박드보

라 목사, 박성신 전도사, 백석영 목사, 서정애 목사, 송성자 목사, 수잔 부커 목사, 신 에스더 목사, 유남수 목사, 이선자 목사, 이성자 목사, 이윤주 목사, 이은숙 목사, 이은혜 목사, 이향숙 전도사, 장명주 목사, 지금순 목사, 한마리아 목사로 총 28명이 공식 참석했다.

수련회를 섬기는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 이성자 목사는 "세계 복음화의 중보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명을 일깨우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여교역자들만 모이는 이유로 "남성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 현장에서 힘을 잃지 말자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뜨거운 찬양과 통성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수련회 둘째날인 23일(화)에는 간증과 말씀 시간(송성자 목사, 장명주 목사, 김순연 목사, 김영미 목사), '목회자의 인격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대화 모임(인도: 한마리아 목사) 등을 갖고 목회 부흥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23일 저녁 집회도 이만호 목사가 인도했다.

24일(수)에는 루이이 동굴로 관광했으며, 저녁에는 이성자 목사의 인도로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렸다. 마지막 날인 25일(목)에는 마중만 목사(총회 총무)의 설교로 오전 폐회예배를 드렸다.

조요한 기자

미동부 교계, 허리케인 영향 주요행사 연기

워싱턴교협, 워싱턴교역자회 등 11월로... 뉴욕교협 이사회도 연기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미동부 지역 교계 주요 행사들이 연기됐다.

먼저 10월 29일(월) 오후 6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차용호 목사) 제38차 정기총회가 연기됐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는 제 38차 정기총회를 11월 1일(목) 오전 11시 버크 소재 필그림교회(담임 손형식 목사, 4925 Twinbrook Rd., Burke, VA 22015)에서 열기로 했다. 워싱턴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박인철 목사)도 10월 29일(월)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한 주 연기해 11월 5일(월) 오전 11시 웨이크필드 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사회도 10월 29일(월) 오후 7시 플러싱 급강산 식당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뒤인 11월 5일(월) 오후 7시로 날짜를 연기했다.

문의: 워싱턴교협 회장 차용호 목사 703-581-9235, 총무 김위만 목사 703-624-5264, 워싱턴교역자회 회장 박인철 목사 703-964-7242, 뉴욕교협 이사회 718-358-0074

김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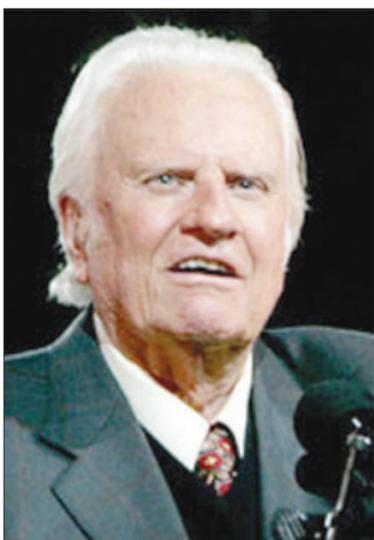


롬니 공개 지지한 빌리 그레함, 비판 직면

복음주의 “이단인 몰몬 성장 도와 준다”

진보주의 “정치적 이슈에 치우친 목소리 내”

미트 롬니 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연합(The Billy Graham Evangelical Association, 이하 BEGA)이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와 그의 아들이자 실제 BEGA를 이끌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이번달 초 노스캐롤라이나 자택에서 롬니 후보와 만났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 자리에서 “롬니의 (기독교적) 가치관들과 강한 도덕적 신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BEGA는 웹사이트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성경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종교자유를 수호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성경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나와 함께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동성결혼과 낙태를 찬성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롬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를 지지하게 되는 것에 실망했다”고 적었다. 빌 교수는 ‘성경이 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대변인인 래리 로스 씨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레함 목사는 60년 이상 공적인 사역 가운데 어떤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고자 노력해 왔다. 2010년 4월 오바마 대통령과 2008년 캠페인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됐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방문을 포함해, 몇몇 정치인들과 대선 후보들이 그레함 목사를 방문하는 동안 항상 그런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레함 목사는 정치적인 이슈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옹호하고 성경적 가치관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로스 씨는 “그레함 목사는 11월 7일 94세가 되며 노환으로 인한 시력 감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한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 봄 출간을 앞둔 ‘나의 대답들(My Answers)’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희 기자

애틀랜타 지역 대형교회서 총기 사건 발생

과연 한인교회들은 안전한가?

前 교회 직원, 해고에 앙심 품고 총기 난사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경, 크레플로 달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조지아주 켈리지 파크 소재 월드체인저스처치 인터내셔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의 범인은 52살 흑인인 플로이드 팔머로 몇 달 전에 해고된 교회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20~25명 가량 모인 수요일 오전 기도모임에서 팔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총을 난사했으며, 기도모임을 인도하던 그렉 맥도웰(39) 씨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고 쓰러지자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오후 4시경, 벡헤드의 레녹스 스퀘어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했다.

범인인 팔머가 사람에게 총을 발사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십여 년 전에 볼티모어에서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은 정신건강 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전과가 있는 그가 어떻게 교회 직원으로 채용됐는지,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 원래 총격 대상이 크레플로 달러 목사였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들은 목요일 오전 범인의 아파트를 수색해 그의 물건들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맥도웰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교회 프로덕션 직원이자 시설 관리 매니저로 일해 왔으며, 찬양 리더로 성실하게 사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월드체인저스처치의 크레플로 달러 목사는 현재 언론의 접촉을 거절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인 켈 테리 목사는 맥도웰 씨는 ‘훌륭한 지도자이자 롤 모델이고 아버지’라고 회고하면서, 그는 교회의 오랜 멤버였으며 “몇 년간 신실하게 사역했다. 우리는 그

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알아왔다. 그는 또한 자신의 두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온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밝혔다.

교회가 위치한 켈리지 파크 출신인 크레플로 달러 목사에 의해 1986년 개척된 월드체인저스처치는 매주 약 3만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뉴욕과 엘에이, 인디애나, 워싱턴 D.C. 등지에 지교회가 있는 대형교회다. ‘믿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변영신학으로 비판을 받아오다 얼마 전에는 심대 딸을 폭행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달러 목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몇몇 성도들에게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교회들도 교회 안정성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 대형 교회의 경우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예배 시간에는 주차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일정시간 동안 상주하긴 하지만, 한 두 명의 인력으로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총기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범인을 막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예배, 금요일예배의 경우 시간대 역시 어두운 새벽이나 밤이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아직까지 한인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사건은 없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수정 사우나 총기난사 사건이나 호스트바 사건 등 한인 타운 곳곳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 주의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조지아 주에서 크고 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지속적으로 예배장소(Worship Place)에서도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성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삶 성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김한오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8.8.31 나눔을 이끄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월일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을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정애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예배 오후 7:45
오후 12:00(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랑,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Made in USA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11월 30일까지)

오리지널 6병+알파 2병
or 오리지널 8병
8병 (280불)

100불 + tax

프로모션 B (11월 30일까지)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100불 + tax

프로모션 C (11월 30일까지)

오리지널 1병+
알파 5병 =
6병 (280불)

100불 +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5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효기능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을 사랑합니다.- 보은사례 운동 안내

HQ구연산으로 모든 질병에서 많은 분들이 해방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HQ구연산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병을 구입하기에도 힘드신
우리들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들께 매달 100병을 한 병씩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진심어린 마음에 동참해 주신다면 세상이 훈훈해 질 것입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화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오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 사라져 버렸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와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고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용연구소 수료
응용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BOOK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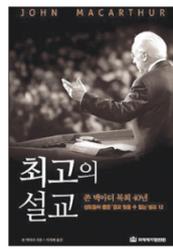
通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최고의 설교

존 맥아더/이지혜 | 국제제자훈련원 | 360쪽

명설교가 존 맥아더의 목회 4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다. 1969년부터 2008년까지, 40년간의 2000번이 넘는 주일설교 중 Best of Best 12편을 담았다. 총 12장에 걸쳐, 시대불문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고민과 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감없이 담았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형대 | 성서유니온선교회 | 224쪽

이 책은 10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청소년매일성경>에 연재돼 많은 청소년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청소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내용을 다듬고, 10대들이 읽기 편하게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존 비비어의 음성

존 비비어 | 터치북스 | 288쪽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단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구별하며, 말씀이 임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자신의 모든 경험을 솔직히 나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박태경 | 쿰란 | 328쪽

이 책은 희망을 원하나 얻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해 버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다시 노래하며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길 소원하며 쓴 책이다. '삼손에서 아손으로', '경쟁에서 공황로', '성장에서 원리로', '외향적인 성취에서 내향적인 성전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초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무신론자들, 공통적으로 '아버지'에게 결함이 있더라

무신론자들 · 유신론자들의 '아버지 비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극악무도하거나 패악한 아버지 등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

이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defective father)'은 무신론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시대'를 연 프로이트에서 시작돼 수많은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됐다. '신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심리학적 표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신에 대한 부정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이

는 '신의 존재 여부'는 심리학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러나 <무신론의 심리학(Faith of the Fatherless)>은 이러한 주장을 반대로 뒤집는다. 저자인 심리학자 폴 비츠는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 신앙'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석했다. 신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이를 느끼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축소하는데 주로 이용했던 심리학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활용한 시도이다.

저자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

로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자신의 지적 삶과 공격 입장의 핵심으로 삼았던 '특히 역사상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선별해 '실험 집단'으로 삼았다. 실증적 연구가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관심사가 아닌 과학자나, 지적인 신념과 상상력으로 빛어낸 작품을 분리하기 어려운 예술가 등은 무신론자라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논증했던 유신론자들을 '통제 집단'으로 이들과 비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니체를 비롯해 데이비드 흄, 버트런드 러셀,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카뮈 등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죽은 아버지 증후군(dead father syndrome)'에 속했고, 토머스 홉스, 볼테르,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은 '유약하고 학대하는 아버지'에 속했다.

아동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등에 따르면 아버지 존재가 가장 강력할 때는



폴 비츠 | 새물결플러스 | 240쪽

은 어린 시절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이들의 자서전과 각종 자료들을 통해 드러났다.

저자는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조종하며,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아버지를 둔 무신론자들에게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증오히게 되거나 심한 절망감에 빠지는 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글을 마무리한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볼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갈수록 가정이 파편화되고 깨어지는 상황 때문에 '무신론자', 우리가 쓰는 말로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도 생긴다.

이대웅 기자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 (마감) / 3월 11일 (신청가능) / 4월 1일 (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 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기도가 중요합니다 강력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아들이 돌덩이를 옮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안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의 최선은

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
우리는 종종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의 동맹군을 앞에 두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 20:12)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대하 20:17).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테니 너희는 구경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니라 기도가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막판에 가서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어떤 일이든 초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유다왕 웃시야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역대하 26:5) 기도의 고백을 늦추지 않았을 때 그는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가 될 수 있었고, 요지마다 성읍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널리 떨치는 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대하 26:6-7)

기도하면 안 풀릴 일도 풀립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기도로 그 낯선 타국에서 주인의 머느리감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창 24:12-27), 노헤미야도 기도로 그 겁나는 절대 군주의 출국 허락을 쉽게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느 2:2-8) 기도가 일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수준에서 이루어 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에서 이루어 집니다.
"항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의 좌우명과 같은 것인데, 아쉽게도 '진정한 의미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서 매어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부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24 강력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30일간 24시간 진행되는 연쇄기도를 통해 강력한 기도를 올려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 기실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 질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를 사용하라. 초대교회는 기도의 운동으로부터 역사를 창출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하는 사역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사역'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바늘구멍 소통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얼마 전 한 언론기관에서 대선주자들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의치면서 정작 국민들과의 소통 톨로인 기자들과는 바늘구멍 소통을 한다며 지적하는 기사를 읽어 보았다. 리더의 입장에서 소통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임이 틀림없다. 기자들도 나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한다 하지만, 자기와 얘기가 안되면 "바늘구멍 소통"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요즘 이상할 정도로 소통이 아이슈이다. TV, 라디오 등 전통적 미디어 매체를 무시해서 SNS, 이메일, 인터넷 등 가장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대에 '소통이 불통'이니, '바늘구멍 소통'이니 하는 뉘앙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이러니다.

대학생들 중 페이스북을 하는 수를 조사했는데, 93%나 됐다. 이 통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 부르는 아랍 세계의 움직임도 이런 SNS 소통 체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소통체제가 활발한 시대에 왜 우리는 계속 소통을 의치고 있는 것일까? 뭔가 뚫리지 않은 듯 답답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만나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 서니시간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답답함 때문이다.
각자의 어젠다만 있을 뿐,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귀가 없어서 일방통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소통의 관건은 이해이다. 이해가 안 되면 백날 이야기해도 제자리이다. 이해의 핵심은 겸손이다. 상대방의 위치에 내려가 앉는 겸손이다. 겸손은 교육으로 습득되는 품성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초자연, 초교육, 초상상, 초인간적 선물이다. 소통이 안된다고 느낄 때,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일이다. 그러면, 바늘구멍으로 낙타라도 충분히 통과할 것이다.

<바로 잡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제 361호 신문의 칼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손영구 목사, 16면) 중 총선거에 관해 '1947년 5월 10일'이라 된 것을 '1948년 5월 10일'로 수정하며 '그러다 3년 후'를 '그러다 2년 후'로 수정합니다.

삼한사온(三寒四溫)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행여 불어닥치게 될 추운 겨울을 겸손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닥쳐와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불행을 자신의 운명으로 고착시켜 버립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면 이번에는 교만방자해져서 자신의 미래를 "영원한 봄날"처럼 생각합니다.
한국 옛 속담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삼한사온이 엇갈리며 위치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따뜻한 봄날을 맞을 때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 주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넘기도록 돕는 온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할 하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예쁜 자매였는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미국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매가 다시 의식을 찾고 회복

되기까지 거의 절망의 45일을 저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목회자가 주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겨울이 끝나고 봄날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감사의 말을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추위는 가차없이 제 인생에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부비동에 생긴 치명적인 종양 때문에 모두 여섯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저는 실의에 차서 한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병원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그 가족들의 깊은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갈 6:7)"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삼한사온"의 신비를 늘 염두에 두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따뜻한 봄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이 상기는 탓으로 사계절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삼한사온"의 날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삼일 동안 춥고 사일 동안 따뜻한 날씨입니다. 다행인 것은 따뜻한 날이 추운 날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 보면 삼한사온의 날씨와 비슷합니다. 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일 동안은 기쁘고 감사할 일이 그 뒤를 따릅니다.
항상 추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늘 따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씨실과 날실처럼 서로 들쭉날쭉 하면서 인생이라는 피륙을 함께 짜 나갑니다. 인생은 항상 이 두 가지의 털실이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엮어내는 운명의 판타지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곧 다가올 따뜻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시련을 이겨냅니다. 좋은 일들이 생겨도 항상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3년 연속 통신부분 최고 히트상품

기부천사 김장훈이 선택한 아이토크비비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100 크레딧 보상*

행사기간 2012년 11월 15일 까지

無 계약기간도 없다! *개통비도 없다!*

모르셨습니까? 아이토크비비는!

- ▶ 집전화 미국·한국 무제한 통화
- ▶ 휴대폰에서도 국제전화 무료(매월 500분)
- ▶ 미국 전화번호·한국 070 번호 동시 제공**
- ▶ 365일 한국어 서비스센터 운영
- ▶ 30일 환불보장 실시

아이토크비비
공식 홍보대사
가수 김장훈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미국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00 크레딧: 글로벌플러스 플랜 가입자에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리며, 그 외 가입 플랜에 따라 해당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무료 크레딧은 13번째 달에 적용됩니다. **무선 부가서비스/컴플라이언스 비용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수수료 조치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은 \$20를 선납금(deposit)을 받습니다. 모든 플랜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기타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월)가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계약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예치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로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모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italkbb.koreadaily.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08770482-5507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생각하는 가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급보증을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건고 건넨인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사업자 문의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선발 기준



손기성 목사
워싱턴DC 은혜장로교회

취직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때입니다. 이런 때 당신이 회사의 오너(Owner)라면 당신의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능력은 있으나 성격이 급하고 덤벼들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는 사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일에 대한 추진력이 약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하긴 하지만 성격이 불같고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드셔서 자립심이 없어 보이는 마마보이 스타일의 사람, 너무 신중한 나머지 매사에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 약덕 사재 일을 하여 과거 평이 좋지 않아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 리더십도 있고 인간관계는 좋으나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 사람들만 모이면 조직을 만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반면 매사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사소한 일까지 잘 챙기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자, 과연 당신은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마 현실에 맞춰 인간 됨됨이나 가치 판단능력이나 학문적 배경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마 모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르신 듯 합니다. 우리 예

수님은 현실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 뿐 (가룟 유다) 아니라 나의 기준에 모두 탈락한 사람들, 허점투성이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탈락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는 눈과 세상의 시각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외모도 빼집이 없고, 말주변도 있어서 주변에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실력도 나이도 경력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만 보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르는 '무리'가 두 종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만나 따르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눅14:25-33)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안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보다 '자기 형편,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유익이나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시거나 선별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첫번째 탈락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턱없이 조건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그 생각과 삶 속에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따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사명을 맡기기도, 세상을 맡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제자는 안돼도 신자는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자와 제자'는 구분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자를 곧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복되어라 섬김의 일꾼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그 외에도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시무권사님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성실히 섬기시는 분들이다.

쉬운 듯 그리 쉽지 않은 많은 커피를 타고 주보를 접는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노인들에게 식사 시중을 들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묵묵히 섬기시는 분도 계셨다.

시무권사님들도 모두 조용조용 맡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다. 교회로서는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분들이다.

매년 임직식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임직 받는 분들의 성실함도 귀하지만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알아주는 성도들의 눈썰미이다. 교회란 어찌 보면 마냥 허술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꾼을 뽑을 때 보면 어쩌면 그리 정확히 볼까 싶은 때가 많다.

그래서 늘 혼자 생각하는데 교회 안의 훌륭한 일꾼 중에 아직 발탁이 안된 분들은 있지만 자격 없는 분이 일꾼으로 뽑히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교회가 여러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토록 세심히 일꾼들을 살피는 성도들의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35년의 역사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일꾼들의 발자취이기도 하다. 이번 임직하신 분들 외에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들의 때에 각각 부르실 것을 믿는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협조하고 위로해야 하겠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교회를 섬겨 오셨던 모든 일꾼들, 이번에 새로 임직한 일꾼들, 또 앞으로 임직하게 될 모든 섬김의 일꾼들을 다시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통해 원로장로님 한 분을 추대하고 시무장로님 한 분과 안수집사님 다섯 분, 그리고 권사님 다섯 분의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식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꾼들인지 새삼 느끼는 바가 있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 오시는 가운데 마침내 온 교회의 어르신인 원로장로로 추대 받으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시무장로가 되기까지 부단히 성장해 마침내 시무장로가 되신 장로님,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성실함에 있다.

이 두 분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원로장로님은 거의 1천 페이지에 이르는 교회의 자료 목록을 거의 혼자 정리하셨고 그 외에도 교인들의 전산자료 등 장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새로 시무장로가 되신 장로님은 집사로서 여러 직분을 거쳐 오셨다. 그리고 맡은 직분을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섬기셨다. 집사로서 섬기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성도가 그를 칭찬하던 기억이 있다. 비교적 큰 교회를 다니다 오신 그 분은 그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실히 섬기는 일꾼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성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눈치 안 보기



정인량 목사
워싱턴영광장로교회

눈치는 염치를 아는 자가 자녀야 할 덕목이다. 눈치없는 자들이 소신 이람시고 자중우돌로 벌여놓은 사건들의 해결사는 결국 눈치를 아는 자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치없는 자들이 눈치주는 왕일 경우가 태반이다. 눈치라고는 쥐꼬리 만큼도 없으면서도 약자에게는 눈치 주기를 다반사로 하는 고약한 자들이 의외로 영계 지도자에 흔하다.

그들이 무차별로 전권후 눈치 레이지를 날리는 것은 고작 출세우기이다. 그는 그 수하와 함께 눈치화망을 구성해서 자신의 왕국을 결성한다. 눈치 주는 쪽은 감자이며 눈치 보는 쪽은 약자인 까닭에 약자는 울고 겨자먹기로 저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눈치 주는 쪽은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므로 약자는 눈치 밟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제 성질을 죽이고 로보트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 태반이 거수기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야흐로 정치계는 눈치작전의 계절이 도래하여 결눈질하는 선량들로 넘쳐나고

일부는 이미 재빠르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번개속도로 이동하였다. 그들의 눈치가 적중하였는지 얼마 안있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만사가 눈치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나같이 눈치가 무디어서 다 차려 놓은 밥상을 건어차는 우를 범하여도 시간이 좀 흘러가니 그런 우가 오히려 득이 되는 일 수도 없다.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눈치를 자랑하다가 그만 망신살이만 한 소인배들이 많기에 그런 속담은 전 시대의 낡은 유물인 것을 유념할 일이다.

잘 나가던 어떤 동료가 울면서 하소연 한 내용은 나이 어린 눈치 왕에게 '뺨' 당하여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식물 떨어진 그에게 "아! 나이가 몇인데"하고 대성일갈 하고 싶었지만 꺾참고 "오히려 잘되었다, 남가일공의 세상 무슨 영화 보겠다고 아직 손비비고 있겠느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속 편히 지내라" 위로하고 말았다.

눈치가 판치는 영계나 정계나 이 전두구 뿐이다. 눈치달인들이 행세하는 한 제대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 우직해도 눈치 안보고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좋은 말 읊고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 하릴없이 흘러간 세월 속에 는 것은 눈치 뿐이라! 가히 눈치 백단쯤 되니 그만 은퇴의 문턱에 다 달았다.

이제는 눈치 주는 이도 없겠고 눈치 받을 일도 없어지니 살 만하다 생각했는데, 웬걸 내자 눈치에, 자식 눈치가 보통이 아니니 애초에 눈치 안 보고 살기에는 글러버린 한 평생이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47주년기념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가 출발한지 어언 47 성상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교훈 아래 학문을 했던 연세동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와 찬양축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사오니 연세 동문들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 **일 시** : 2012년 11월 18일 (주일) 오후 6시
- ▶ **장 소** :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시무) 213)487-3920
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06
- ▶ **특별출연** : 연세콰이어(단장: 권기상)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어린이 합창단(대표:최선휘)
- ▶ **문의** : 준비위원장 정요한 (213)422-9191

주 관 :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서문준
주 최 :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 회장 정요한 목사

HEALTH & LIFE



“살 빼려다 머리까지!”

건강한 모발을 위한 예방 수칙



글렌데일에 사는 주디 김(41) 씨. 그는 최근 다이어트 후 탈모가 생겨 고생하고 있다. 웰빙 열풍과 함께 갈수록 뜨거운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 다이어터(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탈모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는 '휴지기성 탈모'라 부르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50-80개 정도의 모발은 빠진다. 그러나 8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경우라면 '탈모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균형 잡힌 영양관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형 탈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머리카락도 인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이므로, 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케라틴' 단백질이 형성되지 않아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점차 윤기를 잃고 가늘어지

면서 나중에는 탈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인 두부, 생선, 기름기 적은 육류 등을 섭취하도록 한다.

특히 다이어트 시 철분 섭취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운동시 근육으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해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조직 내 산소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켜 지방 분해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미네랄의 불균형 또한 탈모의 원인이 된다. 칼슘,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등의 미네랄은 단백질처럼 모발의 영양 공급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미네랄이 풍부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호두나 아몬드 등에 풍부한 셀레늄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원형 탈모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혈액 중 셀레늄이 과잉될 경우 마찬가지로 모발이 약해지고 탈모를 일으킬 수 있으니 셀레늄을 섭취할 때에는 이를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또한 탈모의 원인이 된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철분의 흡수를 막아 두피에 해롭다. 탄산음료 등에 함유

된 당분은 두피를 이완시켜 탈모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스트레스 관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약간의 긴장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근육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저해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따라서 평소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자.

◇올바른 샴푸질

두피 타입에 따른 적당한 샴푸 선택은 두피를 청결한 상태로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다. 또한 샴푸질의 횟수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데, 샴푸를 할 때 두피 속까지 꼼꼼히 문질러 주도록 하고 샴푸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대이므로 가급적 머리는 저녁에 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 마사지를 해 주고 각질과 노폐물을 깨끗이 없애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머리를 감고 나서는 물기가 없도록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스타일링 제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할 것

지나친 헤어스타일링 스프레이나 젤, 무스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되 사용시 머리카락 끝부분에만 바르고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빗질은 모근을 튼튼하게

빗질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자극해 모근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초적인 모발 손질법이다. 빗질만 잘해도 모낭의 기름이 모발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도포되게 해 줌 모발의 중간이나 끝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 빗질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100번 정도 머리를 빗으면 더 효과적이다.

◇천연 헤어팩으로 두피와 모발에 영양 공급

매일하는 샴푸지만 10분만 더 두자하면 윤기나는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거품낸 샴푸로 두피와 모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감도록 한다. 이 때 달걀, 꿀, 다시마 등 모발에 좋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천연원료로 헤어팩을 만들어 팩을 해주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매일 쓰는 샴푸,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대부분 샴푸를 선택할 때는 향이나 가격에 따라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컨디셔너 선택도 마찬가지다.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샴푸와 동일한 계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올바른 샴푸 및 컨디셔너 선택은 건강한 모발 유지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자신의 두피와 모발 상태에 딱 맞는 샴푸와 컨디셔너 제품을 고르는 법을 알아봤다.

▶건조한 모발

반곱슬머리나 곱슬머리는 직모에 비해 건조하다. 직모는 두피에서 생산되는 기름기가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오지만 곱슬머리는 굴곡 때문에 타고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 반곱슬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천연 곱슬머리의 경우 푸석푸석한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건조한 모발로 인해 고민이라면 곱슬기를 완화하면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는 보습 샴푸를 써 보자. 샴푸에 밀 배아 오일, 쉬어 버터와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너트 오일 성분이 함유됐는지 확인할 것.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실리코인과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도 좋다.

▶기름기 많은 지성 모발

오전에 샴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가 되면 딱진 머리가 돼 고민인 당신. 그러나 피지 분비가 활발한 타입일 수록 가장 멋진 머릿결을 만들기 쉬운 타입이다. 기름기가 많은 편이므로, 샴푸 선택시 보습 성분은 무조건 피하도록 한다. 대신 보습을

위해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고르면 된다. 판테놀은 머리카락에 흡수돼 손상된 머릿결을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매일 샴푸해야 하므로 자극이 약한 샴푸를 고르도록 할 것. 또한, 기름기가 많아 컨디셔너가 굳이 필요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파마, 염색 등으로 손상된 모발

파마나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은 손상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샴푸

를 선택해야 한다. 밀이나 대두 추출물 또는 실크아미노산 같은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추천한다. 단, 가볍게 두피 마사지 하듯 샴푸하는 것이 포인트다. 컨디셔너를 사용할 때는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도록 하고, 보습 성분이 강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는 글리세린과 콜라겐 성분이 함유된 샴푸가 좋다. 콜라겐은 모발의 수분 밸런스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컨디셔너를 고를 때도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을 쓰도록 한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 Fax. (213) 402-5136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주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 먹을거리가

(食物)



감자의 맛

통째로 삶은 하얀 감자를 한 개만 먹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넉넉해지네
고구마처럼 달지도 않고
호박이나 가지처럼 무르지도 않으면서
싱겁지도 않은 담담하고 차분한 중용의 맛
화가 날 때는 감자를 먹으면서
모란 마음을 달래야겠다

(이해인 · 수녀 시인, 1945-)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 감자

감자에 얽힌 사연이 기가 막히다. 16세기 서구사회에 유입된 이래 4백년 가까이 먹을거리 축에 못 끼었다. 래리 주커먼이 쓴 책 <감자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책에 따르면, 감자는 성경에 먹을거리로 기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악마의 선물'이 되고, 담배와 같은 가치와 식물이라는 이유로 불경스러운 식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유럽 상류층은 재배하기 쉽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하층민을 나태하게 하는 먹을거리로 간주하기도 했다.

짐승에게 줘서도 안 되는, 아니 짐승에게나 줘야 할 천박한 음식으로 비하된 감자. 하지만 편견과 의심의 잣대로 재단되기에 감자는 너무나도 고마운 먹을거리다. 좁고 척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양식에 가까웠다. 식사 대응으로 좋은 감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B군 복합체,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을 함유한다. 칼륨이 풍부해 음식을 짜게 먹는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먹을거리다.

수분 조절을 돕고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증세가 있는 경우 감자를 먹으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에 소량 들어있는 리포산도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자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이자 예민한 성분이기도 한 비타민C가 많다. 감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약 20mg으로 사과의 3배 이상이다. 감자 2개만 먹으면 성인의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섭취하는 셈이다. 보통 비타민C는 열에 의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섭취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전분에 의해 보호돼 조리 과정을 거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에 비해 비교적 칼로리가 낮다. 게다가 포만감이 뛰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감자에 풍부한 칼륨이 부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토록 몸에 좋은 감자. 오늘 점심 밥상은 보기 좋게 삶은 감자를 흡입해 보는 건 어떨까. 당장이라도 동네 마트에 달려가 맛있는 감자를 손에 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여기서 맛있는 감자 고르는 팁을 알아보자. 우선 보기 좋은 감자가 맛도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흠집이 적고 모양이 동그랗고 통통한 놈을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낮다. 놀러 봤을 때 단단하고, 속이 딱 감자라야 맛을 보장한다. 주름이 많고 껍질이 녹색이거나 싹이 난 감자는 수확한 지 오래 지나 백발백중 맛이 없다. 그래, 오늘 한 끼는 맛 좋은 감자를 제대로 골라 배를 든든히 채워보자.

매운 감자 샐러드 한국인이란면 만들 수 없는 개운하고 매운 맛



감자는 평소 반찬이나 간식으로 많이 먹는다. 흔한 게 감자조림 아닌가. 햄버거 먹을 때도 감자튀김은 필수다. 퍽퍽하지만 달콤한 감자는 조리법이 다양해 의외로 여러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다. 오븐에 굽거나 삶아 먹어도 맛있고, 튀기거나 볶는 것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리법이다. 오븐에 구울 땐 고기와 함께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다. 굽기 전에 포크로 찌러주면 굽는 시간이 단축할 수 있다. 오븐에 구운 감자는 먹을 때 열을 식힌 다음 반으로 잘라 치즈나 버터, 베이컨 등을 올려 먹으면 일품이다. 삶은 땐 구울 때와는 달리, 젓가락이나 포크로 구멍을 내지 않는 게 좋다. 구멍으로 수분이 스며들어 감자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껍질째 삶는 것이 포인트다. 전분이 물에 녹아 맛은 물론 영양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튀길 땐 두 번에 나눠 튀기면 더욱 바삭해진다. 튀길 때는 삶은 때와 달리 껍질을 벗겨 전분이 빠져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서로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노릇노릇하면서도 바삭하게 튀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튀기거나 기름에 볶을 땐 가끔씩 몸에 좋은 기름을 사용하도록 하자. 후라이팬에 가볍게 볶을 땐, 미리 한 번 찌거나 삶아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음은 오리엔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요리연구가 미셸 조 씨가 소개하는 '매운 감자 샐러드' 레시피다. **매운 감자 샐러드** 레드 포테이토 Red Potato 3개 베이컨 Bacon 1큰술 파슬리 Chopped Parsley 1큰술 다진 파 Chopped Green Onion ... 1큰술 검은 후추 Black Pepper 약간 1_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가한다. 물이 끓으면 소금을 뿌린 다음 레드 포테이토를 넣고 삶는다. 2_대략 감자가 익었는지 포크로 찌러 본다. 이 때 찢어서 겨우 들어간 다 싶을 정도로 반쯤 삶는 것이 포인트다. 불을 끈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둔다. 3_삶아 놓은 레드 포테이토를 잘라 그 위에 칠리 파우더와 파마산 치즈를 뿌린 다음 오븐에 또 한차례 구워낸다. **드레싱** 재료_올리브 오일 2큰술, 화이트 와인 비네거 1큰술, 디종 머스터드(Dijon Mustard) 1큰술, 케이퍼(Caper) 1큰술 1_믹싱 볼에 분량의 올리브 오일,

화이트 와인 비네거, 디종 머스터드, 케이퍼를 넣고 잘 섞어 준다. 2_베이컨은 잘게 썰어서 팬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두르고 잘 볶은 다음 기름을 제거한다. 이때 베이컨을 키친 타월에 얹어 남아 있는 기름도 완전히 제거하면 좋다. 3_만들어 놓은 소스에 베이컨, 후추를 넣고 잘 섞어 드레싱을 완성한다. 4_오븐에 구운 감자를 믹싱볼에 넣고 미리 준비해 놓은 드레싱을 붓는다. 5_감자와 드레싱을 잘 섞은 후 다진 파와 파슬리를 마저 넣고 잘 섞는다. 6_완성된 감자 샐러드를 오목한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매운 감자 샐러드'는 디종 머스터드가 들어간 드레싱을 사용하기에 약간 매콤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에게 익숙한 매운 맛은 아니다. 서양인들이 즐겨먹는 머스터드의 매운 맛에 가깝다. 흔히들 감자 샐러드는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하다는 이유로 많이 못 먹는다. 그러나 이 '매운 감자 샐러드'는 느끼한 맛이 덜하기 때문에 매콤한 맛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안성맞춤인 메뉴다. <쿠킹 클래스 문의: (562) 896-309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COLLISION CENTER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10'x10') (10'x20')

90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7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양복점

직접재단 직접재봉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태양광 에너지 전문 Tree Solar Inc

솔라 전기 컨설팅 회사
태양에너지 교육

James Han 310.991.2135

905 Diamond Ave, #9 South Pasadena, CA 91030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10% 할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광고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신문광고/ 잡지광고/
브로셔/ 온라인홍보물

213.814.1342

213.587.3498

kp.rodemh@gmail.com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Q.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30

음식은 살리니! 자동차 핸들 커버
출몰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선명한 음질, 저렴한 요금, 편리한 이용 - 아이토크비비!

한국과의 시차 16시간. 머나먼 고국에 있는 친척,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 마음껏, 요금 걱정 없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아이토크비비'가 제공하는 저렴한 플랜의 인터넷 전화가 해당.

지난 6월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층에 직영매장 1호점을 오픈하고 한인 고객 맞이에 한창인 '아이토크비비 LA 직영점 1호'는 많은 한인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집전화 요금은 절대적으로 내려주고 통화량은 무제한으로 늘려주는 아이토크비비는 한인들의 관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미 서부 마케팅을 맡고 있는 아이토크비비 이용수 부장은 "요즘 들어 부쩍 집전화 요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평소 아무생각 없이 지불하는 집전화 요금이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져 요금도 저렴하고 통화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아이토크비비를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선교의 필수 용품 -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

아이토크비비 가입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아이토크비비 가입시 폰어댑터를 제공 받는데 제공받은 폰어댑터를 가지고 해외 어

는 선교지로 나가더라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최근들어 한인 교회의 해외 선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해외 선교 활동에 있어 큰 고민거리중에 하나가 통신비이다. 해외 선교시 본국과의 연락이 중요하데 매번 비싼 국제전화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LA 'K'교회의 'L' 장로님은 '처음에 선교활동을 가면 본국과 통화 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젠 매년 여류 단기 선교를 가면서 꼭 아이토크비비 어댑터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원활하게 본국과 통화를 하게 되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토크비비를 이용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출장지, 선교지에서 무제한 통화를 즐길 수 있다.



가정용 전화 완전 대체

비싼 집전화 바꾸고! 요금 절약하고! 무제한 통화 즐기자!

이와같이, 인터넷 전화는 최소한의 요금으로도 필요한 만큼 또는 무제한의 통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선 인터넷, 휴대전화, 집전화 등 총체적으로 결합된 인터넷 전화 아이토크비비의 돌풍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아이토크비비는 11월 2차 프로모션으로 기존 집전화를 아이토크비비로 바꿀 경우 최대 \$100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집전화 고인이 많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아이토크비비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친구추천 프로모션을 올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아이토크비비를 새로 가입하고 친구나 지인들을 추천하면 한명 추천시 1개월, 2명 추천하면 3개월, 3명 추천하면 6개월, 4명을 추천하면 1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서, 보상 크레딧도 받고 친구추천 크레딧도 받아 1년 이상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iTalkBB 한국어 고객 상담 센터: 1.800.872.2902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는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다. 처음 인터넷 전화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부터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 가족들과 통화, 연결할 수 있게 한다는 기업가 정신이 들어 있었다.

2008년부터 워싱턴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 아이토크비비는 그동안 수많은 자선행사, 기부, 제휴 활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미국 주요 도시 한인회 등 비영리 한인 단체들에게 아이토크비비 전화를 무료로 지원 해 왔다. 이처럼 아이토크비비는 한인사회의 구성구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왔다.

또한 한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연계한 플랜을 출시하거나, 월드컵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한국팀을 응원하는 마케팅을 펼쳐, 이를 통해 한인사회의 주된 관심사에 동참하는 기업 이미지를 고취시켰다.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행사도 열었다. 아이토크비비 주관으로 2011년 9월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2011년 워싱턴 건강박람회'에는 내과, 외과, 정신과, 심리과, 물리치료과, 한방과 등 워싱턴 지역에서 권위있는 의사들이 대거 참여해 한인들을 무료진료했다. 회사측은 "아이토크비비를 사랑해준 한인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건강박람회를 열었다"며 "특히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한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전역에 있는 여러 한인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등 한인커뮤니티에 깊숙히 들어와 한인들 기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아이토크비비는 매년 미 전역에서 개최하는 한인축제 등을 후원하여 한인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마케팅으로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사가 주최한 컬리지페어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2012년 아이토크비비는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진 김장훈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독도지킴이와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진 김장훈씨는 아이토크비비 1대



홍보대사인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추신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에 이어 아이토크비비 2대 홍보대사가 되었다.

요금별 다양한 플랜, 폭넓은 선택

한국의 가족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친구들을 두루 두고 있는 김모씨. 국제전화를 하기위해 전화카드를 사고 매번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으로 통화가 싸다 싶으면 유럽 국가 통화로는 터무니 없이 높았고, 유럽에 맞춰 사자니 한국 요금이 비싸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용이 간편하고 요금까지 저렴한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인상을 찌푸렸다.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이런 김씨의 고민은 그의 일만은 아니다. 인터넷 전화회사인 아이토크비비는 "김씨에게는 27개국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랜이나 글로

벌 플러스 플랜을 추천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업체는 매월 25~35달러대의 저렴한 요금에 '무제한' 국제통화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업체의 주요 플랜을 정리했다.

글로벌 플랜 \$24.99/월

매월 요금은 \$24.99달러로 로컬, 장거리, 캐나다는 물론 한국 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통화를 할 수 있다. 070으로 시작하는 한국 로컬 번호가 부여돼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국내전화요금으로 미국에 부담 없이 전화 할 수 있다. 또 가입자의 휴대전화기로 이 플랜을 이용해 27개국에 전화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미주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114한인업소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음성사서함, 발신자 표시, 3자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한국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된 플랜으로 글로벌 플랜의 서비스와 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한국의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요금은 매월 34.99달러.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월 요금이 4.99달러로 가장 저렴하다. 국내외 전화 사용이 많지는 않지만 가정용 전화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추천한다. 장거리 포함 미국내 및 캐나다 전화가 분당 2센트, 한국 유선전화는 분당 2.6센트이며 한국 휴대전화로의 통화는 분당 5센트이다. 기존 전화번호 이전도 가능하다.

집전화 요금 비교하면 아이토크비비가 정답! 지금 바꾸면 최대 \$100크레딧 보상!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추추전국시대인 요즘, 일반 요금을 다 내고 전화 사용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만큼 공공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로컬이나 장거리 전화는 물론 국제전화도 저렴한 비용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터넷 음성 통화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아이토크비비는 미주 내 가장 저렴한 비용에 국내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타통신사의 유선 전화 요금을 비교해 보면 아이토크비비의 국내 및 국제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랜은 매월 24.99달러의 정액제다.(표참조)특히 현재 진행 중인 보상프로모션을 이용하면 비용을 추가로 최대 \$100까지 더 줄일 수 있다.

반면 월 요금이 가장 비슷한 AT&T(35달러)와 비교해 보면 국제 전화는 물론 국내 장거리나 캐나다와 전화 사용에도 추가 요금이 붙는다.

또한 아이토크비비가 제공하는 한국 로컬 번호 제공 서비스는 다른 통신사 그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특히 이 회사의 타 업체와 다른 강점은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토크비비 가입자는 자신의 플랜을 이용해 휴대

	iTalkBB 글로벌플랜	AT&T U-Verse Voice Unlimited Plan	Verizon Freedom Essentials	Time Warner Cable Digital Home Phone
플랜/월요금	\$24.99	\$35.00	\$49.99	\$39.95
미국 로컬, 장거리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한국 포함 전세계 27개국	무제한	추가요금	추가요금	추가요금
한국 수신 번호	070번호제공	X	X	X
휴대폰으로 국제전화	매월 2라인 500분	X	X	X

전화기로 매월 500분 동안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개월 총 사용 요금에서도 아이토크비비의 요금이 299.88달러로 가장 낮았다. AT&T가 뒤를 이었지만 장거리 통화로나 국제전화 사용료 등 각종 추가 비용을 합산한다면 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iTalkBB 한국어 고객 상담 센터: 1.800.872.2902
직영점: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방문 상담 환영) 일요일도 Open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다양한 혜택과 감동,
오늘 푸엔테힐스에서 누리십시오.



+ TAX(STK.050060)
\$596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11월 1일~30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다른 워런티를 사셨습니까?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들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 Residual: \$30,659 / T.D.O: \$5,399
Plus Comp Rebate /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ER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2013 SONATA GLS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121 + TAX(STK.558019)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46 + TAX(STK.203934)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